

몇 가지 재배조건이 분화용 오랑캐장구채(*Silene repens* Patr.)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정은아¹⁾, 전기범¹⁾, 이재효¹⁾, 최혜민¹⁾, 문상아¹⁾, 연수호²⁾, 이승연³⁾, 권순태^{1)*}, 이철희^{2)*}

¹⁾안동대학교 원예육종학과, ²⁾충북대학교 축산·원예·식품공학부 생물건강소재산업화사업단, ³⁾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Effect of Several Cultivation on Growth of *Silene repens* Patr. as Potted Plant

Eun-ah Jeong¹⁾, Ki-beom Jeon¹⁾, Jae-hyo Lee¹⁾, Hye-min Choi¹⁾, Sang-a Moon¹⁾, Su Ho Yeon²⁾, Seong Yeon Lee³⁾, Soon-tae Kwon^{1)*} and Cheol Hee Lee^{2)*}

¹⁾Dept. of Horticulture and Breedi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²⁾Brain Korea 21 Center for Bio-Resource Development, Division of Animal, Horticultural, and Food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³⁾Useful Plant Resources Center, Korea National Arboretum, Yangpyeong 12519, Korea

오랑캐장구채는 석죽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일본 홋카이도, 사할린, 바이칼호에 서식하며, 한국에서는 중부 이북지방의 산지에 자생하는 유용 자생식물로 활용가치가 높다. 분화용 소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31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10주간 재배조건을 조사하였다. 분화용 오랑캐장구채의 재배는 이색칼라 화분 8, 10, 12호 중 12호 처리구에서 직경, 생체중, 근경 등에서 효과적이었는데 특히, 엽면적은 다른 처리구보다 2배 이상 넓어서 관상용으로 적합하였다. 이식묘의 소질은 162구 트레이의 유묘가 초장, 엽수, 엽면적이 가장 크거나 많았고, 한 cell당 2립씩 파종된 유묘처리구가 엽면적이 넓고 엽록소 함량이 높아 상품성면에서 효과적이었다. 혼합용토는 코코피트:펄라이트(3:1)혼용구가 피트모스:펄라이트(3:1) 혼용구보다 엽면적과 근장이 큰 편이었다. 혼합 비료(N-P-K)는 600-400-400 mg \square^{-1} 비료가 첨가된 처리구에서 특히, 초장, 엽수, 엽면적, 엽록소 지수, 근장 및 생체중이 처리별로 가장 우수하여, 원예상토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기비로는 코트비료 40알 처리구가 근장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생육이 우수하였다. 오랑캐장구채를 분화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재배관리 방법은 차광이 되지 않는 곳에서 추비 1,000 mg \square^{-1} hyponex 시비 및 왜화제로 1,000 mg \square^{-1} daminozide를 처리하며, 10주간의 재배를 위해서는 적심을 하지 않는 것이 생육에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야생화 산업화를 위한 활용도 다변화, 연중재배 및 개화조절 기술 개발, KNA 17-C-38”의 사업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주요어: 야생화, 관상식물, 혼합상토, 왜화제, 적심

T. 043-261-2526, leech@chungbuk.ac.kr